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아
그를 기다려 저녁 한길로 나가보니
보오안 초생달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느릅나무 그늘 새로 화안히 불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복두성좌의 그 찬란한 보국(譜局)이 신비론 ㉠ 꽃대처럼 지켜
있나니
때로는 하나이 병으로 높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도련도련 이뤄지는 너무나 의고(擬古)*한 단란을
먼 천상(天上)에선 ㉡ 밤마다 이렇게 지켜 있고
인간의 수유(須臾)*한 영위(營爲)*에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 되어 있었나니**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복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

- * 의고: 옛것을 본뜬.
- * 수유: 짧은 시간.
- * 영위: 일을 꾸려 나감.

(나)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꽃혀 있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애

교의선을 타고 갈곳없이 방향하던 무렵,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초라한 행상아줌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마분지곽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곽 위로 ㉣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그런 노란 것들이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아아, 얼마나 슬픈가,
차가운 냉장칸 맨 윗줄에서
달걀껍질 속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어미답애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처럼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더 ㉤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나도 역시 여권이 분실된 사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 김승희, 「달걀 속의 생(生) 2」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⑤ 축약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 ~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면 '복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보면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우리 집'은 화자가 (A)으로 활용된 소재이고, (나)의 '냉장고'는 화자가 (B)로 활용된 소재이겠군.

- ① A: 현실에서 외면하고자 하는 공간
B: 이상 실현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근거
- ② A: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
B: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
- ③ A: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
B: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
- ④ A: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
B: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
- ⑤ A: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간
B: 현재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려는 동기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시적 화자는 일반적으로 일인칭에 해당하며,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의미한다.

-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에서는 화자가 ‘보요안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을,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은,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군.

[5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

먼저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증거능력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의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증거, 곧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된다. 이를 독수과실이론이라 하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독에 오염된 나무라면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는 그 나무에 달린 독 열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 방법이 ㉢ 자백을 얻어 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진술과 서류인 전문서류가 있다.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견, 조작의 [A] 우려가 있다는 점,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 전문법칙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전문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를 ‘증거동의’라고 한다.

한편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한다. 증명력 평가는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능력 평가가 증거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된다. ㉤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다.

* 임의: 자기 의사대로 처리하는 일.

5.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명력 판단의 주체
- ②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③ 자백배제법칙의 종류
- ④ 독수과실이론의 적용 사례
- 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목적

6.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이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인 경우
- ② 수사 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경우
- ③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이지만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 ④ 불법적인 수단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억지로 얻어냈지만 결국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 ⑤ 증거동의를 받은 전문증거가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법원에 인정된 경우

7. <보기>는 밑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사건 요지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됨.
- 수사 기관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p>[증거 1] 유효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화약류 [증거 1-1]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증거 2]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증거 3]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증인의 진술</p>
--

- 법원 판결 요약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이에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그 외 [증거 2], [증거 3] 등의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① 법원은 [증거 1]과 [증거 1-1]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겠군.
- ②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증거 1]과 [증거 1-1]을 자료로 사용했겠군.
- ③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 1-1]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겠군.
- ④ 법원은 [증거 2]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겠군.
- ⑤ 법원은 진술증거인 [증거 2]와 [증거 3]을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보았겠군.

8. [A]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 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을 담은 전문증거가 이에 해당된다.

- ① ㉠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의 진술이 담긴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 ② ㉡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서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군.
- ③ ㉠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 ④ ㉡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법원이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군.
- ⑤ ㉠과 ㉡는 모두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9. 자유집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거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법원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 ② 법원은 신빙성 없는 증인에 의한 증언도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증거를 선택할 수 있다.
- ④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⑤ 법원에 의해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된 증거들은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0. 밑글을 읽은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한 법칙들의
- ② ㉡: 증명 자료로서 필요한 법률상 자격을
- ③ ㉢: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키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 ④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 ⑤ ㉤: 단순히 자의적으로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11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틀니츠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을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 다르다. 그가 말하는 미적 태도는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이다.

스틀니츠가 말하는 미적 태도에서의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는 다르다.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보이고 느끼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볼 때, 어떤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적’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대상에 반응할 때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감상자는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응은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이 감상자에게 흥미롭게 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공감적이지 못한 것이다.

끝으로 ‘관조’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감상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조는 활동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례로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음악에 집중하여 멜로디를 따라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활동하는 것이 관조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는 아니다. 대상의 독특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식별력이다. 즉, 식별력을 갖추고 관조한다면 더욱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력은 반복해서 예술 작품을 경험하거나,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 기법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하거나,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

(나)

비어즐리는 미적 대상이란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하며, 오직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에 근거하여 미적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입장을 ㉢ 취한다. 그래서 그는 ‘구분의 원리’와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예술 작품에서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미적 대상에서 배제한다.

먼저 비어즐리는 구분의 원리를 제시하며,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의 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그 예술 작품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될 수 없어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각 가능성의 원리는 예술 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데 전혀 지각될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들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미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에 대해 ‘이 그림은 상쾌한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미적 대상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은 유화 물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나 ‘이 그림은 1892년에 창작되었다.’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물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비어즐리는 이 원리들을 종합하여 예술 작품의 속성 중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밝히며, ㉣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예술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1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학생의 응답	
		예	아니요
①	(가)는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
②	(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나요?		✓
③	(나)는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나요?	✓	
④	(가)와 (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활용하고 있나요?	✓	
⑤	(가)와 (나)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나요?		✓

12. <보기>는 ㉣의 관점에서 ㉠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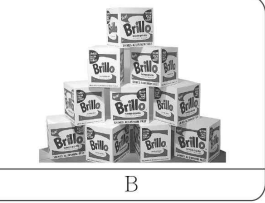
— < 보 기 —

조각 작품에 담긴 특정 신을 찬미하려 한 예술가의 의도는, (㉡)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술 작품과 (㉣)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는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

	㉡	㉢	㉣
①	객관적	구분	없다
②	객관적	종합	있다
③	객관적	구분	있다
④	공감적	종합	없다
⑤	공감적	구분	있다

13. (가)의 ‘스틀니츠’와 (나)의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보기>의 A와 B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B

A는 특정 회사가 실제로 제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종이 상자라 예술 작품이 아니지만, B는 현대 미술가 앤디 워홀이 A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브릴로 박스’라는 제목으로 1964년에 창작한 설치 미술 작품이다.

- ① 스틸니츠는 A는 예술 작품이 아니지만, 감상자가 A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간적으로 관조한다면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스틸니츠는 B는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비어즐리는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로는 B를 미적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비어즐리는 B가 창작된 연도는 미적 대상이 되는 작품의 속성이 아니라고 보겠군.
- ⑤ 비어즐리는 A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B에서의 물리적 측면도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을 구조화한 것이다. 14번과 15번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동기	주제별 체험학습에서 ‘미적 대상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표현주의 연극을 보고 왔다. 친구들과 나는 연극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 예술 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궁금해졌다.
-------	--

독서 과정	학생의 활동
읽기 전	독서 목적 확인하기, 경험을 떠올려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읽기 중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 말로 바꾸어 말해 보기
↓	
읽기 후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14. 학생이 ‘읽기 중’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글은 모두,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규정되는 미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두 글은 모두, 예술 작품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글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두 글은 모두, 감상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상해야 예술 작품은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두 글은 모두, 예술 작품이 미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상자와 예술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5. 학생이 ㉠을 해결하기 위해 (가)의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후’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프랑스 상징시를 감상하기 위해 상징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기
- ② 표현주의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연극을 반복해서 관람하기
- ③ 평시조를 감상하기 위해 평시조의 형식에 맞춰 창작하는 훈련하기
- ④ 사실주의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
- ⑤ 교향곡을 감상하기 위해 곡의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 발휘하기

16. 다음 중 (가)의 ㉠과 (나)의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그녀는 정당한 이득을 취했다.
 ㉡: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 ② ㉠: 그녀는 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 나는 그가 준비한 선물들 중에서 가장 새것을 취했다.
- ③ ㉠: 군인들은 차려 자세를 취했다.
 ㉡: 어머니는 숙면을 취하고 계셨다.
- ④ ㉠: 정부는 실리적인 대의 정책을 취했다.
 ㉡: 그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 ⑤ ㉠: 친구는 퇴원 후 조금씩 음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 그는 당장에라도 일어설 자세를 취했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늡음은 시조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화제 중 하나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를 화제로 삼는 시조들에서 화자는 늡음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서글피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늡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삶을 즐기며 늡음에 대한 서글픔을 잊고자 하는 화자가 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가)

나의 미평(未平)흔 뜻을 일월(日月)세 못줍느니
구만 리(九萬里) 장천(長天)에 무스 일 빙얏바서
㉠ 주색(酒色)에 못 슬핀* 이 몸을 수이 늡게 흐느고

*슬핀: 슬고 미운.

(나)

굴 세는 청산(靑山)이러니 올 세 보니 황산(黃山)이로다
㉡ 산천(山天)도 변흐거든 낸들 아니 늡음쇼나
㉢ 두어라 저리 될 인생(人生)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다 노기니
㉣ 사면(四面) 청산(靑山)이 네 얼골 나노되라*
귀밧테 히무근 ㉤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나노되라: 나타나는구나.

(가) ~ (다)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늡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가)는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자연의 변화에 인간의 노화를 견주어 표현하고 인생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다)는 화자의 상태를 자연에 비유하였지만 순환하는 자연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늡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늡음을 노래하는 작품들 중에는 자연물이 아닌 타자를 동원하여 그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라)

청춘(靑春) 소년(少年)드라 백발(白髮)노인 웃지마라
㉥ 공변된* 하늘(하늘)아리 낸들 얼마 저머시리
우리도 소년행락(少年行樂)이 어제론듯 흐여라

*공변된: 치우침이 없는.

(마)

늡기 설은 줄을 모로고나 늡거는
㉦ 춘광(春光) 덧업서 백발(白髮)이 절노 난다
그러나 소년(少年)씩 ㅁ음(ㅁ)은 감(減)흠이* 업세라

*감흠이: 줄어든 적.

(바)

세월(歲月)이 여류(如流)흐니* 백발(白髮)이 절노 난다
썩고 썩 썩아 꺾고져 흐는 뜻은
북당(北堂)에 유친(有親)흐오시니* 그를 두려 흐노라

*여류흐니: 물의 흐름과 같으니.

*유친흐오시니: 어머니께서 계시니.

(라)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소년들에게도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는 덧없는 세월로 인해 늡어 버린 현재의 육신과 대비되는 소년 시절의 마음을 타자화하여, 늡어서도 소년 시절과 같은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바)는 늡음의 문제를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데, 자신보다는 북당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효를 실천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 ~ (바)의 시조들은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 늡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였다. 단, 이때 타자에는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된다. 자연물과 타자를 세계로, 화자를 자아로 규정한다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유사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함께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으나 인간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노년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늡음에 대해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세월의 흐름은 공평하여 누구나 늡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18. (가) ~ (마)를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일월'과 '장천'은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군.
- ② (나)에서 '청산'은 '황산'으로의 변화를 통해 화자와 유사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이 나타나고 있군.
- ③ (다)에서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와의 유사점이, 불고 난 후에는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 ④ (라)에서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행락'의 시절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 ⑤ (마)에서 'ㅁ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19. ㉔와 ㉕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② 화자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 ③ 화자가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화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⑤ 화자에 대한 타인들의 시선을 변화게 만든 대상이다.

20. ㉔를 바탕으로 (바)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월이 여류하니'를 보면 화자가 나이를 먹게 된 원인을 알 수 있겠군.
 - ② '백발이 절노 난다'를 보면 화자가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늙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뽑고 또 뽑아'를 보면 화자가 효를 실천하고자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검고져 흐는 뜻은'을 보면 화자가 어머니를 배려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복당에 유친호오시니'를 보면 화자가 봉양하는 어머니가 계신 장소를 알 수 있겠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 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우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중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

[A]

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 恐慌)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慌)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덕을 찾아가** 사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께 뵈옵고 아뢰거늘,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불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덕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옵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 자부: 며느리.
 * 존구: 시아버지를 높이는 말.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용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덕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덕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들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덕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눈발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 **원수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 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더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리까?

- 안석경, 「검녀」 -

*기사: 기이한 선비.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2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하며 궁극한 사실을 물었다.
- ② ‘유씨 부인’은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 ③ ‘김씨’는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다.
- ④ ‘장 사랑’은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다.
- ⑤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원통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기뻐하였다.

23.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성취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③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가 몸을 숨긴 곳이다.
- ② ㉡: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찾아간 곳이다.
- ③ ㉢: ‘소저’가 자신이 한 일을 죽은 부모에게 고한 곳이다.
- ④ ㉣: ‘저’가 ‘선생’과 함께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는 곳이다.
- ⑤ ㉣: ‘저’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려는 곳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① (가)의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택을 찾아가’는 것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김씨’가 ‘곳간 문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저’가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것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것과 (나)의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혔’다는 것에서,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제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 머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 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

는 그만 가슴이 펼떡이고 전신이 찢터찢터해지는 것이다. ㉢ 절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뽕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리라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나는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측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만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토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건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갈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갯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제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예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월에 삼십에 오오,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년 거치 오년 상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직한 연결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㉔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불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㉕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부오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조경래, 「동백」 -

26. ㉑과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㉑과 ㉕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㉑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㉕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㉒ ㉑과 ㉕은 반어적 기법을 활용해, ㉑은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㉕은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㉓ ㉑과 ㉕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㉑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㉕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 ㉔ ㉑과 ㉕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㉑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㉕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㉕ ㉑과 ㉕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㉑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㉕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27. ㉑ ~ 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㉒ ㉒: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 ㉓ ㉓: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 ㉔ 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격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 ㉕ ㉕: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28. 유직한 연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
- ㉒ 여공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금액의 평균은 팔백만 원이었다.
- ㉓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 ㉔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목은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 ㉕ 사채 동결 이전 여공들은 원금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경리과에서 받았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진다.

- ㉑ 분옥이가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㉒ 봉자가 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㉓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㉔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년째 되는 해부터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 ㉕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겠군.

[30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최소 단위의 점인 **화소**로 구성되며, 각 화소에는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값이 부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대신 저장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에는 ㉠ 무손실 압축과 ㉡ 손실 압축이 있다. 무손실 압축은 압축 과정에서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은 떨어지지만,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반면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여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무손실 압축에 비해 수 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어 보편적인 압축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PEG는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JPEG 형식의 압축은 크게 전처리, DCT,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첫째, 전처리 과정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과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우선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 모델을 RGB에서 YCbCr로 변경한다.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화소의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하는데, 변경된 YCbCr 모델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와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 Cr로 분리하여 화소의 정보를 표현한다.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YCbCr 모델로 변경되면, 화소들에서 일부 값만을 추출하는 샘플링이 진행된다. 인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색상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와 Cr은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추출된다. 이러한 샘플링은 화소들을 일정한 단위로 묶은 블록에서 J:a:b의 비율로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J는 화소 블록의 가로 화소 개수를, a는 화소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를, b는 두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4:2:0의 비율로 색상 정보를 샘플링하면, 가로 화소의 수가 4개인 화소 블록 중 첫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2개 추출되고, 두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는다. 결국 4×2 블록에 있는 여덟 개의 색상 정보 중 두 개의 정보만 추출되어 데이터의 용량은 줄어든다.

전처리 과정 후에는 DCT라고 불리는 변환 과정이 진행된다.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DCT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 8개, 세로 8개의 화소로 블록화된 행렬을 기본 단위로 진행된다. DCT가 수행되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은 행렬의 왼쪽 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댓값보다 크다.

다음으로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

림하게 된다.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 이는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하지만 고주파 성분에는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해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부호화는 양자화를 거친 행렬값을 이진수의 부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허프만 부호화가 사용된다.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드물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비트: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최소 단위로서 0이나 1로 표현됨.

3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다 ㉡은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 ② JPEG는 ㉡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 ③ ㉠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하면 데이터의 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 ④ ㉠을 활용하여 압축된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 ⑤ ㉡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한다.

31. 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소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 ② 화소는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③ 화소 수의 증감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화소의 정보는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로 분리될 수 있다.
- ⑤ 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 <보기>는 뒷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32번 ~ 34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I. JPEG 형식의 압축 과정

㉠ 전처리 → ㉡ DCT → ㉢ 양자화 → ㉣ 부호화

II. 심화 활동

1. JPEG 형식의 샘플링 이해하기 활동

(가) (나)

(가)와 (나)는 동일한 디지털 이미지를 JPEG 형식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서로 다른 샘플링 비율을 도식화한 것이다. ●는 색상 정보가 추출된 화소, ○는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은 화소를 의미한다.

2. DCT와 양자화 이해하기 활동

아래의 결과는 DCT와 양자화 과정에서 얻은 행렬값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									

→

㉢									

32.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PEG 형식의 압축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이 샘플링보다 먼저 진행되었군.
 - ② ㉠를 통해 추출된 화소의 정보들은 ㉡에서 주파수로 변환되었군.
 - ③ ㉡에서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해 낸 화소의 정보는 ㉢에서 특정 상수로 나누어 반올림되었군.
 - ④ ㉢와 ㉣에서는 모두 데이터를 손실시켜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주겠군.
 - ⑤ ㉣에서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비트 수를 다르게 할당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겠군.

33. 뒷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JPEG 형식의 샘플링 이해하기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색상 정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는 행이 있겠군.
 - ② (나)의 샘플링을 J:a:b 비율로 나타내면 4:1:1로 표현할 수 있겠군.
 - ③ (가)와 (나)는 각각 샘플링 비율은 다르지만,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는 동일하겠군.
 - ④ (가)와 (나)에서는 추출된 Cb와 Cr의 각각의 개수만큼 Y가 추출되었군.
 - ⑤ (가)와 (나)에서 색상 정보가 일부만 추출된 것은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34. 뒷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DCT와 양자화 이해하기 활동’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양자화 과정을 거치면 0의 값이 되겠군.
 - ② ㉠와 ㉢는 양자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상수를 사용하겠군.
 - ③ ㉠의 절댓값보다 ㉢의 절댓값이 크겠군.
 - ④ ㉡와 ㉣는 저주파 영역을 나타내겠군.
 - ⑤ ㉢의 절댓값이 ㉣의 절댓값보다 작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